

다산포럼

김정남



두 갈래 길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가지 않은 길'로만 가면 다 되는 줄 알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과 반대로만 하면 만사형통할 줄 알았다. 그러나 출발점이나 그 방향점은 달라도 그 결을 걸어나 하는 것은 두 정권이 난형난제(難兄難弟)라 할 만큼 너무도 닮았다. 거칠고 서툰 것이 그렇고, 가볍고 천박하기가 또한 그렇다. 분별없는 천방지축이나 온갖 수선 다 떠는 그 소란스러운 폼세까지도 꼭 닮았다.

세계화가 불가피하다 해도 굴욕과 종속은 싫다. 6·3사태와 '6월의 거리'는 그 출발점이 같다. 정권의 도덕성이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6월 민주항쟁'과 촛불시위는 성격을 같이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6월의 그 광장에 서있는 것이다.

우리는 '6월 광장'에서 있다

일본은 생후 20개월 이하면서 위험한 부위를 제거한 경우에 한해 수입을 인정하는데 반해, 한국은 30개월 이상에 걸쳐 주권까지 포기했다. 별장에 초대해 돈 대 감압하여 제 발로 달려가 헌상한 꼴이니 이명박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 이명박 정권 가지고는 세계화도 FTA도 안되겠다고 국민은 걱정하게 되었다. 공기업 민영화도 외국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어디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현안도 현안이지만,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신과 반대가 급속히 확대되자 누구는 복기(復讐)를 해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고 주장하고, 누구는 과감한 인적쇄신을 살길이라고 말한다. 복기도 좋고 인적쇄신도 좋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진정성이냐.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가슴에 와 닿는 진정성을 보여준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진실한 것을 진술하고 진지하게 고백한 적이 없다. 노무현 정권이 '아니면 말고'식이었다

면 이명박 정권은 미봉책과 속임수로 이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술수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은 그 수를 원히 꿰뚫어 보고 있다.

진정성 없이 해결책 없다

제 입으로 BBK는 내가 창설했다는 동영상이 나왔어도 해명이나 사과가 없었고, 도곡동 땅 문제 등 재산문제가 터져 공지에 몰리자 사회에 헌납한다 해놓고도 여태까지 후속조치가 없다. 대운하에 대해서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정략적 모호성으로 이고비만 넘기고 보자 한다.

저돌성으로 호가 난 이재오가 "대통령의 형과 맞설 등신이 어디 있느냐"고 할 만큼 호가후로 전향하고 있는 그 형을 그대로 놔두고서야 백번 천번 인적쇄신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또한 현재의 미봉책이요 속임수일 뿐이다.

진실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먼저 그 진정성을 보여야. 국민의 눈에 그 진정성이 보일 때만 국민은 이명박 정부를 비호할 마음이 든다. 오직 진정성만이 해결책이다. 그리고 진정성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조차 없다.

〈인문인·다산연구소 제6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亞문화중심도시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국내 최대 문화공간이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늘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역사적인 기공식을 갖는다. 지난 2002년 말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광주 문화수도'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지 6년여만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은 2023년까지 추진될 최대 국책사업 중 하나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이다. 따라서 문화전당 기공식을 계기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완공 예정인 문화전당은 규모와 시설 면에서 국내 최고다. 7천984㎡의 건립비용과 4만6천평의 부지는 국립중앙박물관보다 크다. 문화전당은 문화 콘텐츠의 연구·개발, 공연, 전시가 원스톱으로 펼쳐지게 돼 아시아 문화발 전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문화전당이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 문화전당이 개관 이후 어떤 좋은 콘텐츠로 공간을 채우고, 얼마나 많은 관객들을 모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00일 지나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등이 9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정확한 일정과 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다분히 정략적 의도로 좌초위기를 겪고 있는 '문화콘텐츠기술 연구원(CT연구원)'을 조속히 광주에 설립해야 한다. 위원장 공석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정상화도 서둘러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1세기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國富) 창출의 원천이다. 정부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입장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 힘모아 촛불집회 '평화' 지켜내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접화된 촛불집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선한 민심은 '6·10항쟁' 21주년인 오늘,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광장 등 전국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에는 100여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농민, 대학생, 종교계 등은 광주공원과 금남로 등에서 사전 집회를 갖고 촛불시위와 거리행진을 벌인다.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달 10일 이후 최대 규모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와 여성단체, 종교계 등 광주·전남 각계 인사들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집중 성토했다.

문제는 공권력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우유 먹이기를 시도했다니 천만다행으로 폭폭 잘 빨았다. 일단 우유 먹이기가 성공하면 새끼를 젖 빨려 키우는 일에 가장 큰 숙제가 해결되는 셈이다.

다행히 광주는 지금까지 평화적 촛불 집회를 유지해왔다. 쇠파이프까지 등장해 과격화, 폭력화의 우려를 낳고 있는 서울의 집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과격행동을 자제하고 경찰도 과도한 진압에 나서지 않는 등 서로 노력한 결과다.

집회와 시위는 법률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소중한 권리다. 권리를 향유하려면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목적과 의도가 아무리 순수해도 과격·폭력시위로 변질되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광주에서의 불법시위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

평화집회는 지켜져야 한다. 과격시위는 과잉진압을 부르고 과잉진압은 폭력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비폭력, 평화시위 의지를 다지기 바란다. 경찰도 시민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無等鼓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80만%' 무슨 가상의 수치일까,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할까 싶은데, 아프리카의 빈국 짐바브웨의 현실이다. 단순하게 평가해서 개별 물가가 1만배 이상 올랐다는 의미다. 100원짜리 물권이 180만 원이 된 꼴이다. 이 나라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실정과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음료와 곡물, 연료, 생필품 부족현상이 극심해지면서 경제가 파탄에 달한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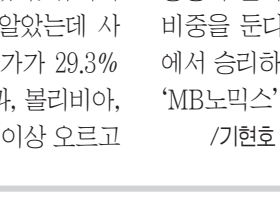
거론할 가치도 없는 짐바브웨만의 특수한 사정으로 돌리고 싶지만 고유가시대 지구촌 전체가 물가전쟁에 휩싸여 있다. 휘발유값이 1ℓ에 3천원, 한국 돈으로 30원밖에 안

따르면 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먹는 라면, 김밥, 자장면, 튀김등 당의 물가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에 고급음식에 속하는 쇠갈비, 스테이크 등의 상승률은 높지 않았다. 고물가의 피해는 이렇듯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려

야한다. 정부 출범 이후 오직 경제 성장만 고집하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방송과 인터뷰에서 뒤늦게 물가안정에 비중을 둔다는 발언을 했다. 물가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강만수의 변신이 아닌 'MB노믹스'를 뜯어 고쳐야 한다.

/기현호 경제부처장 khh@kwangju.co.kr

물가 전쟁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시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편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 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NGO 칼럼

박영희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이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평균 0.7%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정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공교육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교 자율화 조치'와 '0교시 우열반 편성'과 함께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교육을 살려내는 일야말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가정과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자

이제는 우리의 교육정책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해 생긴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공교육을 살려내는 일야말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가정과 국가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녀석 운명은 기구하다. 아무도 없는 저녁, 어미가 새끼를 낳다가 난산 끝에 그만 죽어버렸다. 그런데 뱃속에 매달린 채로 이 녀석은 거적막에서 살아 있었다. 죽은 어미의 뱃속에 매달려 살아있는 새끼, 아침에 본 이 광경은 참으로 안타까운 풍경이었다.

일본원숭이 새끼, 온순이

이 녀석 운명은 기구하다. 아무도 없는 저녁, 어미가 새끼를 낳다가 난산 끝에 그만 죽어버렸다. 그런데 뱃속에 매달린 채로 이 녀석은 거적막에서 살아 있었다. 죽은 어미의 뱃속에 매달려 살아있는 새끼, 아침에 본 이 광경은 참으로 안타까운 풍경이었다.

보통 뱃풀이 끊어지지 않으면 새끼는 자발적으로 호흡을 못한다. 그래서 어미가 이미 죽었다면 뱃풀과 연결되어 있는 새끼도 함께 죽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는 추측컨대 어미가 난산 끝에 새끼를 완벽하게 낳고 우는 것까지를 확인한 후, 미처 뱃풀을 끊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새끼의 생명을 지켜내는 사람을 비롯한 영장류 동물들의 뜨거운 모성애를 다시 한번 엿보게 되는 대목이었다.

이무튼 일단 뱃풀을 부러부러 자르고 곧바로 진료실 간이 인큐베이터로 옮겼다. 다행히 새끼의 활력은 정상적으로 분명한 원숭이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처음 하루는 우유 대신 포도당 물을 먹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게 했다. 그 다음날부터 본격적으로 우유 먹이기를 시도했다니 천만다행으로 폭폭 잘 빨았다. 일단 우유 먹이기가 성공하면 새끼를 젖 빨려 키우는 일에 가장 큰 숙제가 해결되는 셈이다.

우유를 먹인 후에 가만히 돛 위에 올려놓으면 어미의 털난모질에 매달리는 이 녀석, 그저 사람스럽기만 하다.

◇최종 목적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전자상거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해야

아버지께서 인삼재배를 하신다. 고향 마을은 백삼과 홍삼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필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를 돕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저질 중국산 인삼과 백삼이 넘쳐나 손색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인삼 판매에 큰 도움이 됐는데 이것도 가짜들이 생겨나 팔지가 아프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팔다보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인삼들이 마구 팔린다. 국산이라고 속이고 중국산을 들여다가 흡수공이나 자라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국산 인삼이라고 팔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그걸 확인하지 못한 채 국산 인삼인줄 알고 속아서 산다.

이제 농민들도 인터넷 없이는 농산물을 팔

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인터넷 판매는 중요하다. 그만큼 전자상거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 덩달아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이 극성을 부리니 정말 농민들을 죽이는 것이다.

원정 당국은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경우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안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판매자가 인터넷 화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다고 해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 원산지표시제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다. 현재 소고기나 다른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활발히 실시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도 하루빨리 법으로 제정돼야 할 것이다.

▲이종삼·광주시 동구 호남동

우버나 투명 우산 사용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자

요즘 부쩍 비가 자주 온다. 슬슬 여름이 다가오면서 우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특히 어린이들이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일반 우산을 쓰고 있다가 앞을 보지 못한 어린이들은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무심코 교차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우산 대신 접이식 우버를 입게 하고 우산을 써야만 하는 경우조차도 가능하면 투명우산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님들은 안전보다도 어린이에게 외형적인 치장을 중시하

고, 특히 우산인 경우 각종 캐릭터 그림 등이 그려져 있는 우산을 사용하게 한다. 그 때문에 비가 올때 우산으로 앞을 가려 각종 충돌사고가 일어난다.

이럴 때 투명우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투명우산은 말 그대로 우산 자체가 투명필름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다.

또한 우산 테두리에 야광 테이프를 붙여 야간에도 차량들이 야광빛을 보고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다.

어른들의 이 같은 작은 안전의식이 어린이에 생명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이현미·광주시 남구 백운2동